

큰 글자 가이드
Large print guide

창령사 터 오백나한
FIVE HUNDRED
ARHATS OF
CHANGNYEONGSA
TEMPLE

2 December 2021 – 15 May 2022

PARTNER

Chuncheon National Museum of Korea

MAJOR SPONSOR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f the Republic of Korea

SUPPORTERS

Kore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Korean Cultural Centre Australia

Australia-Korea Foundatio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이 전시는 한-호 수교 60주년 기념전입니다

Celebrating 60 years of bilateral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Australia

유물을 만지지 마세요

Please do not touch the arhats

사진 촬영시 플래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No flash photography permitted

차례

CONTENTS

소개 Introduction	4-5
우리의 마음을 닮은 얼굴 Reflection of our Hearts	6
성속을 넘나드는 나한의 얼굴들 The Faces of Arhats: Between the Earthly and the Saintly	7-9
일상 속 성찰의 나한 Arhats of Daily Introspection	10
부록: 창령사 터와 나한상의 발견 Appendix: Discovery of the Changnyeongsa Temple and Arhats	11

Scan to read more about the
Five Hundred Arhats of
Changnyeongsa Temple



창령사 터 오백나한

고려시대(918-1392)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오백나한 五百羅漢은 조선시대에 폐사된 강원도 영월 창령사蒼嶺寺 절터에서 2001-02년에 발굴되었습니다. 불교에서 나한은 아라한阿羅漢의 줄임말로 불가의 진리를 깨달은 성자를 일컬으며 오백나한은 부처 입멸 뒤 그의 말씀을 경전으로 편찬하기 위해 모인 오백명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이번 전시는 대한민국 국립춘천박물관의 ‘영월 창령사 터 오백나한: 당신의 마음을 닮은 얼굴’ 전시의 해외 순회전으로 오십점의 나한상과 한 점의 부처상을 선보입니다. 또한 우리의 시선을 내면으로 인도하고 명상과 사유를 이끌어내는 작업을 해온 설치작가 김승영이 이 전시에 함께 하여 나한의 진가를 더욱 빛나게 하였습니다. 옛 장인들이 빚어낸 소박한 한국미가 드러나는 나한상은 부처나 보살상과 다르게 일상 속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와 마주합니다.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기쁨에 찬 나한과 내면의 충일감을 일깨우는 명상의 나한, 그리고 순진무구한 나한들 사이를 거닐며 당신의 마음을 닮은 나한을 자유롭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FIVE HUNDRED ARHATS OF CHANGNYEONGSA TEMPLE

In 2001–02, over 300 carved stone Buddhist statues were discovered at the Changnyeongsa Temple site in Yeongwol, Gangwon-do province, Republic of Korea — mostly depicting the Five Hundred Arhats of Buddhist tradition. The temple is believed to have been built during the Goryeo dynasty (918–1392 CE) and destroyed amid repression of Buddhism around the middle of the Joseon dynasty (1392–1897 CE).

Arhats — also known as *nahan* in Korean, *luohan* in Chinese or *rakan* in Japanese — are enlightened beings who remain in an earthly state to help others attain spiritual liberation. Disciples of the historical Buddha who gathered following his death to compile his teachings, are revered as the Five Hundred Arhats.

This exhibition presents one Buddha and 50 arhats, generously on loan from Chuncheon National Museum of Korea, in a re-imagining of their installation produced in collaboration with contemporary Korean artist Kim Seung Young titled *Five Hundred Arhats of Changnyeongsa Temple Site, Yeongwol: Reflections of Our Hearts*. The innovative setting showcases the soul-touching beauty of the arhats created by unknown artisans of the past.

우리의 마음을 담은 얼굴

‘오백나한의 수많은 표정을 읽다 보면 어느새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감정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전시장을 거닐면서 벽돌에 새겨진 기쁨, 행복, 원망, 두려움, 분노, 슬픔과 같은 여러 감정이 담긴 글귀와, 마치 빌딩숲처럼 높게 쌓인 스피커로부터 들리는 소리,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감정으로부터 자유롭게 온전히 웃고, 울고, 기뻐하는 창령사 터 오백나한의 얼굴들을 만나게 됩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이 공간이 고요히 나 자신에 집중하여 잠시나마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색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승영

김승영 작가가 참여한 이 전시는 사운드 디자이너 오윤석과 향기 디자이너 애인즐리 워커가 함께 하였습니다.

Reflection of our Hearts

‘In this exhibition, you will see bricks inscribed with phrases of joy, excitement, resentment, fear, anger, and sorrow, while listening to a mixture of sounds coming from speakers that are stacked like a forest of buildings. It is here that you will truly encounter the genuine smiles, tears, and joy of the Five Hundred Arhats of Changnyeongsa Temple. I hope that this installation, linking past and present, will become a meditative space where people can focus on themselves and listen to their inner voices, if only for a short time.’

Kim Seung Young

This installation by Kim Seung Young includes sound design by Oh Yoonseok and olfactory experience design by Ainslie Walker.

성속을 넘나드는 나한의 얼굴들

이 공간은 자연속에 머무는 오백나한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들은 신의 형상에 비하면 속된 영역에 속하지만 내면의 고독과 정진으로 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나 인간으로서는 가장 높은 경지에 올랐습니다. 나한은 이처럼 성궤와 속궤의 경계에 머물며 실은 나와 다르지 않은 높이에 있기에 누구나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친근한 대상이 됩니다. 돌덩어리에서 아주 살며시 표정짓는 눈과 코, 입에서 배어나오는 미소, 그 형태의 원만함이 평온함을 찾는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창령사 터 오백나한의 얼굴들을 마주하며 이 공간이 고요히 나 자신에 집중하며 잠시나마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일수 있는 사색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The Faces of Arhats: Between the Earthly and the Saintly

This installation symbolically recreates the tranquillity of the forest surrounds where the Five Hundred Arhats are traditionally depicted. Unlike Buddhas or Bodhisattvas, the arhats of Changnyeongsa Temple resemble ordinary people. Their facial expressions show the gamut of human emotion from joy, sorrow and anger to the pleasures of everyday life. Straddling the secular and sacred worlds, they do not seem very different from us, which is why we find them so relatable. Embodying true empathy, these candid faces ask us to listen to our own inner voices and let their enlightenment resonate within each of us every day.

전시의 1부 ‘성속을 넘나드는 나한의 얼굴’ 에는 창령사 터 오백나한상 29 점이 진열되었습니다. 각각의 나한상은 표정이나 의상 등 특징을 나타내는 명칭이 표시되어 있는 대좌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나한상 대부분은 인도 전통의 법의(法衣)인 가사를 (산스크리트어로 카사야) 착용하고 있습니다. 몇몇은 한국 전형적 의상인 소매가 길고 넓은 장삼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추운 기후를 이겨내기 위해 장삼과 가사를 흔히 함께 착용합니다. 머리를 가사로 감싸고 있는 나한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파된 선불교의 도상화로 볼 수 있으며 달마스님 (산스크리트어로 보리달마)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The installation titled *The Faces of Arhats: Between the Earthly and the Saintly* features 29 statues with labels describing a distinctive characteristic of the arhat's pose or attire.

Most wear a robe known as a *gasa* (from the Sanskrit *kasaya*) in the Indian tradition. Some wear a typically Korean long wide-sleeved robe called a *jangsam*. Wearing a *jangsam* and *gasa* together became common in Korea, reflecting the colder climate. Arhats with a head covering display the iconography of Zen Buddhism that was spread from India to China, and later Korea, by the monk Dalma (Bodhidharma in Sanskrit).

바위 위에 앉은 나한

Arhat sitting on a rock

장삼을 입은 나한

Arhat wearing a *jangsam*

수행하는 나한

Arhat engaged in spiritual practice

(4 좌대) (4 plinths)

두건을 쓰고 홀을 든 나한

Arhat wearing a headscarf and holding a sceptre

가사를 쓴 나한

Arhat covered by a *gasa* robe

(7좌대) (7 plinths)

찬탄하는 나한

Arhat expressing admiration

명상하는 나한

Arhat in meditation

(3 좌대) (3 plinths)

미소띤 나한

Smiling arhat

(2 좌대) (2 plinths)

정진하는 나한

Arhat in devotion

합장하는 나한

Arhat with hands pressed together

소매를 걷어올리는 나한

Arhat rolling up his sleeves

보주를 든 나한

Arhat holding wish-fulfilling jewels

바위 뒤에 앉은 나한

Arhat sitting behind a rock

가사 밖으로 손을 내민 나한

Arhat holding hand out
from *gasa* robe

생각에 잠긴 나한

Arhat lost in thought

암굴 속 나한

Arhat inside a stone cave

장삼과 가사를 입은 나한

Arhat wearing a *gasa* over *jongsam*

나한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Arhat lives within you

일상 속 성찰의 나한

이 공간은 우리가 과거의 문화유산을 현재 시점에서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개인적인 교감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현대미술 설치 작가인 김승영의 1000개가 넘는 스피커를 쌓은 ‘타워’ 라는 작품에 사운드 디자이너 오윤석이 참여하고 나한과 부처님을 곳곳에 배치하여 완성한 이 콜라보 작품은 마치 도시의 빌딩숲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복잡한 도시 일상과 그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연상됩니다. 빌딩숲 속에 놓인 나한과 부처님을 보며 일상의 소음에 파묻혀 오랜 시간 잊고 지내온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 보세요. 깨달은 자, 나한과 같이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울)

당신 마음속의 나한을 보세요

Arhats of Daily Introspection

This space seeks to help us connect with the historic carved stone statues on a personal and intuitive level to enhance our understanding of the saintly beings they represent and their commitment to spiritual practice. In this room a Buddha and 21 arhats of Changnyeongsa Temple are placed amid more than 1000 speakers. Part of Kim Seung Young's Tower series this installation mimics the voices and noises of the city reminding us that even amid the bustle, challenges and distractions of urban life we can still find a way to reflect within our own hearts and spirit. Just like the Five Hundred Arhats who attained enlightenment, we must listen carefully to hear our own long-buried inner voices.

(Mirror)

Look at the arhat in your heart

부록

창령사 터와 나한상의 발견

2001년 강원도 영월 창원리 ‘무덤치’로 알려졌던 곳에서 주민 김병호 씨가 밭을 일구다 우연히 나한상 조각들을 발견하여 발굴조사가 시작되었다.

발굴 조사에서 ‘창령’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기와 파편이 발견되어 곧 그곳이 역사에 기록되어있는 지어진지 800 - 1000년이 넘는 창령사 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창령사 터에서 발견된 형태가 완전한 상과 파편등 총 328점 중 317점이 나한상이었으며 이는 오백나한을 기리는 나한전에 모셔졌던것으로 추정된다.

나한상은 나한전 밖에서 흩어진 채 발견 되었으며 대부분 손상된 흔적을 지니고있어 이는 아마도 400 - 600년 전 조선의 건국이념이었던 유교 사상의로의 전환에 불교가 탄압 받으면서 절과 불구 그리고 나한상이 파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APPENDIX

Discovery of the Changnyeonsa Temple and Arhats

In 2001, a farmer Kim Byeongho was clearing a hillside near his home when he found carved stone heads, prompting archaeological excavations of the area long known by locals as the *Mudeomchi* (Hill of Graves) temple site.

Roof tile fragments inscribed with the characters for ‘changnyeong’ were unearthed identifying the site as that of the historically recorded Changnyeonsa Temple, believed to have been built between about 800 and 1000 years ago.

Among the ruins were 328 whole or partial carved stone statues, 317 depicting arhats and believed to have been intended as part of a larger set honouring the revered Five Hundred Arhats.

The arhats were found scattered outside the *nahanjeon* (arhat hall) and many bear the marks of being struck, indicating the temple and its contents were probably destroyed during the repression of Buddhism by the new state of ideology of Confucianism — most probably around 400 to 600 years ago.

Min-Jung Kim, Curator
min-jung.kim@maas.museum

© Museum of Applied Arts and Sciences, 2021

Five Hundred Arhats of Changnyeongsa Temple
Large print guide

This guide reflects the exhibition at the time of printing,
December 2021

Powerhouse Museum
Museum of Applied Arts and Sciences
500 Harris Street
Ultimo NSW 2007
Australia
+ 61 2 9217 0111

maas.museum